

젊은 예술가들 실험작 가득 '新개미장터' 구경 오세요

新개미장터

예술경영지원센터, 5~10일 광주 예술의 거리 서양화·미디어·조각 등 50여명 150여점 전시 작가와 만남·도슨트 동행·미술품 경매 등 다채



신도원 작 '움직이는 추상'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작가 미술 장터'를 열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쉽게 미술품을 향유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은 참여작가에게 돌려줘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다. 3년간 4300여명의 작가가 참가했고 77만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올해는 전국에서 17개 미술장터가 열린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관 단체들이 다양한 주제로 장터를 개설하고 작가와 시민들을 초청한다.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열리는 '미술 퍼레이드 新개미장터' (이하 新개미장터)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에 주목하고

행사를 기획했다. 예술의 거리에서는 오래된 물건을 파는 '개미장터'가 유명해 왔고, '어여쁘다 공동'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 화방, 갤러리, 작가 작업실 등도 몰려 있다. 이번 전시는 최신 현대미술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신진 작가와 실험적 작품을 대중 앞에 소개하고 미술 작품의 생산·소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기획이기도 하다. '신개미장터'는 동부경찰서 쪽 예술의 거리 입구 건물(광주시 동구 예술길 29)의 지하 1층과 3층을 활용해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아트컴퍼니모이모(대표 서지안·Art Company Mo2Mo)는 'Young&New'에 포커스를 맞춰 출품작가를 선정했다. 자체 선정과 함께 지역 미술공간 운영자들에게 추천도 받았다. 총 참여작가는 서양화, 한국화, 미디어,

도자, 사진, 그래피티, 옷칠, 판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작 50여명(팀)이며 모두 150여점이 전시된다. 개인전 1~5회 작가 25명, 5회 이상 10명으로 구성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개인전을 열지 않거나 1차례 진행한 작가들도 15명 포진했다. 광주비엔날레 주제전에 참여하고 있는 강동호 작가, '수집된 산수' 시리즈의 하루 K, 골판지로 작업하는 양나희 작가, 영국 런던과 서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영현 작가, 설박, 윤준영, 엄기준, 김단비, 김신희, 성혜림, 한은혜, 김승택 등이 참여하며 '그림자 산수'의 사진작가 강영태, 판화작가 강행복, 서양화가 최재영 등 중견 작가들도 참여했다. 작품 가격은 40만원~200만원 수준이며 도자 작품의 경우 10만원대 미만 작품도 눈에 띈다.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 작가가 창작 스

튜디오로 활용하고 있는 3층을 활용해 전시하는 미디어 존은 음악과 작품이 어우러진 'rock&pop' 컨셉으로 연출, 관객들이 '즐거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신도원, 가브리엘, 박세희, 김명우, 문찬환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했다. 개막일인 5일에는 갤러리와 미술관 종사자, 콜렉터 등을 대상으로 VIP 투어를 진행한다. 다양한 작품을 도슨트와 함께 관람하고 참여 작가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이어 작가와 콜렉터, 미술계 관계자와 관람객이 어우러지는 네트워킹 나잇 파티도 개최한다. 6일에는 일반 관람객과 함께하는 미니 미술품 경매가 열린다. 이조흠 작가가 경매사로 참여하며 협합, 알앤비 등으로 구성된 DJ쇼도 진행한다. 일요일인 7일에는 최근 예술의 거리로 작업실을 옮긴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작업실 탐방과 함께 현대미술과 미디어아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일 아트스쿨'도 연다. 서지안 대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으로 평소보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작품을 구입



백상옥 작 'rubber shoes_grand'



신도원 작 '움직이는 추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가 미술장터'는 오는 11월 'Art at Home II-예술이 가득한집'을 주제로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 예정이며 장동광 주비엔날레 GD폴리 등에서 轉技類(집기류)를 주제로도 진행된다. 문의 070-7766-7668.010-4337-100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에냥' 10월호 나와 '국악계 사이' 소리꾼 남상일 만나다

월봉서원 '문화재의 재발견'...獨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

할 수 있는 전곡에서 17개 미술장터가 열린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관 단체들이 다양한 주제로 장터를 개설하고 작가와 시민들을 초청한다.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열리는 '미술 퍼레이드 新개미장터' (이하 新개미장터)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에 주목하고

행사를 기획했다. 예술의 거리에서는 오래된 물건을 파는 '개미장터'가 유명해 왔고, '어여쁘다 공동'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 화방, 갤러리, 작가 작업실 등도 몰려 있다. 이번 전시는 최신 현대미술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신진 작가와 실험적 작품을 대중 앞에 소개하고 미술 작품의 생산·소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기획이기도 하다. '신개미장터'는 동부경찰서 쪽 예술의 거리 입구 건물(광주시 동구 예술길 29)의 지하 1층과 3층을 활용해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아트컴퍼니모이모(대표 서지안·Art Company Mo2Mo)는 'Young&New'에 포커스를 맞춰 출품작가를 선정했다. 자체 선정과 함께 지역 미술공간 운영자들에게 추천도 받았다. 총 참여작가는 서양화, 한국화, 미디어,

지역에서 같은 공연을 연달아 100번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000여 명이 함께 만들어 온 달거리의 지나온 이야기와 새롭게 시작하는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을 함께 소개한다. '해외 문화현장' 두 번째 소식은 독일의 소도시 노이스 홀츠하임에 자리한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이다. 화려한 랜드마크를 자랑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미술관과 달리 인젤 홈브로이히는 자연과 예술, 건축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이 매력적이다. 이외에 서양화가 한희원의 '그림으로 보는 문화기행' 검은 바다에 숨은 보석 크림반도, 사진으로 만나는 '2018 광주비엔날레' 화제작들, 사천의 바다가 품고 기른 서정시인 박재삼을 만날 수 있는 박재삼 문학관, 퓨처스리그를 평정하고 타이거즈맨으로 복귀하는 박준표 투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다. /이보람 기자 boram@

"아비농 페스티벌처럼" 담양 '징검다리 축제' 첫 발

아트마켓·미디어 아트쇼·음악회·주민 난타 등 열려 정희남 대담미술관장·방송인 전유성씨 '5년 구상' 결실

담양의 관광명소 관광청 일대가 주민들의 문화축제장으로 거듭났다. 대담미술관과 향교리 주민이 함께 만든 '징검다리 축제'가 지난 28일 열렸다. 이 행사는 '동네방네 미술관'을 내건 대담미술관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마련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대담미술관과 관광청 일대에서 아트마켓과 푸드마켓, 미디어 아트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정희남(60) 대담미술관 관장과 행사의 총연출을 맡은 코미디언 전유성(69)씨가 5년 전부터 구상해온 축제가 열매를 맺는 자리였다. 이들은 프랑스 남동부의 작은 도시 아비농에서 열리는 '아비농 페스티벌'처럼 지역 주민의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축제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축제의 문을 연 '향교리 아트마켓'에

는 이 마을에 사는 김금복, 정정순, 신미순, 박정순, 신명순, 이순덕, 황선봉 할머니가 솜씨를 발휘했다. 대담미술관에서 미술 교육을 받은 7명 할머니들이 그린 자화상은 티셔츠와 머그컵 등에 활용돼 장터에 나왔다. 책갈피, 찻상, 참빗 등 지역 장인들의 수공예품도 매대에 올랐고 주민들의 손맛이 담긴 먹거리도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전유성씨가 진행을 맡은 공연은 주민과 관객 100명이 함께하는 '내멋대로 나무 빨래 난타'로 시작을 알렸다. 그룹 '가람과 뱀'의 운영로가 무대를 꾸미고 이정선과 밴드는 '외로운 사람들', '몽개구름' 등을 부르며 가을 밤 정취를 더했다. 이어 진시영, 송환규 작가의 '미디어 아트쇼'를 만난 뒤 해금연주자 강은일의 무대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최근 경북 청도에서 전북 남원으로 보급지리를 옮긴 전유성씨는 "관방천의 징검다리과 빨래터의 모습을 살려 향수 어린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며 "징검다리 축제를 차츰 보완해 주민이 주도하는 멋진 축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백희준 기자 bhj@

담양 관광청 일대에서 열린 '징검다리 축제' 모습.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특허공법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